



남원시가 남원관광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사업 추진에 전(全)방위적인 대응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 추진

7개 시군 단체장 국가예산확보 · 지역 현안 논의 · 대응방안 모색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남원관광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사업 추진에 전(全)방위적인 대응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 기초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운천 국회의원(도당 위원장)에게 "전북발전의 패러다임은 동부산악권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이야말로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최근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악관광 활성화를 전격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

다. 그래서 지금이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아울러 이 시장은 남원시 신성장동력산업인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의 마지막 단계인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센터(화장품 유통, 판매, 전시, 체험 종합센터, 70여원)를 내년에 조기완공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정운천 국회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며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써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북 시·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하였다.

한편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전북 7개 시군 단체장은 8월 11일, 남원시청에

모여서 국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에 대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주관하고 남원,임실,순창,임주,무주,진안,장수 7개 시군 단체장과 김용호, 신재봉 당협위원장 등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참석하여 시군의 국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사업(291억원, 2016~2019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34km에 3,330여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부의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읍성 일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선정

55억원 투입... 습지 · 탐방로 · 조류탐조대 등 다양한 생물서식 공간 조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읍성 일원을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으로 복원해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자연마당 조성공사를 2018년 10월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읍성 일원은 올해 2월 환경부의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3년간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습지, 탐방로, 관찰데크, 조류탐조대 등 다양한 생물서식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지구인 고창읍성 일원 6만6,611

㎡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법경작, 묘지조성 등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생물서식공간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된 도시경관 및 녹지공간의 체계적인 생태복원과 계획이 절실히 필요했던 지역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 지역의 도심 생태계검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공원) 결정,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분묘개장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지구 주변에 분묘개장 안내 대형 현수막을 설치 홍보와 추석명절 기간(9.14~9.18) 동안 근무조 편성 및 전 화차산을 통해 분묘개장 및 보상관련 안내 · 홍보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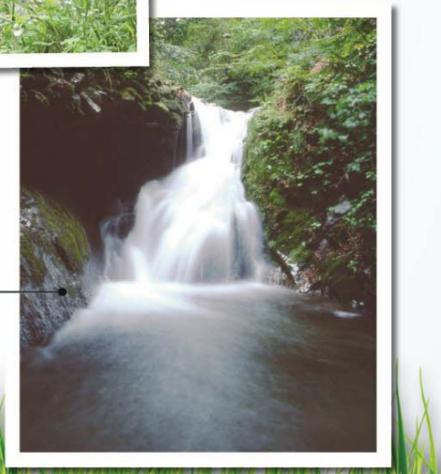
IMSIL-GUN 임실군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



세심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 http://smhu.imsil.go.kr



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2-9456~7
- http://www.sunsusan.co.kr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 페스티벌'

음악분수 · 에어바운스 풀장 설치 · 바람개비 만들기 등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폭염을 한방에 날리는 '아쿠아 페스티벌'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임실군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해 체험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기억에 남는 관광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축제는 음악분수와 더불어 에어바운스 풀장을 설치하고 누구나 즐기는 물놀이를 비롯해 야외 상설 행사장을 운영해 바람개비 만들기, 연만들기, 버블슬러시, 조각피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남녀노소 오감 만족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축구장 19개 넓이의 드넓은 초원 위에 조성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스위스 아펜젤 마을

의 풍경과 알프스풍을 담은 건축물을 비롯해 초록 언덕이 펼쳐져 이국적이며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며, 지난 4월 '임실엔치즈·낙농특구'로 지정돼 지속적인 개발 여건 확보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치즈테마파크 관계자는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테마파크에서 무더운 폭염 더위를 잊고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객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쿠아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임실N치즈·피자 체험 관련 내용은 임실 치즈테마파크(063-643-2300 / 643-3400) 또는 홈페이지(www.chesepark.kr)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흥영 기자

국립지리산



강천산 마케팅 효과 관광객 급증

순창군 강천산이 연일 관광객이 몰리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군은 지난 주말과 휴일 강천산을 찾은 관광객이 3만여명 정도라고 밝혔다. 8월에만 10일 기준 6만명이 방문한 수치다.

군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130만 관광객 방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천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시원한 숲과 계곡을 찾은 관광객이 급증하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전라북도가 토달관광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강천산 동굴형체험시설 조성과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을 통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과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초청 강천산 힐링 체험행사 등 차별화된 마케팅 사업은 강천산을 전국적 관광지로 발돋움 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불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 등 홍보 대상을 세분화한 타겟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지역실정에 맞춘 '건강조사' 실시

만 19세 이상 900명 대상 조사

순창군이 지역실정에 맞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 향후 만성질환 없는 순창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16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순창지역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들의 음주 및 흡연 현황, 운동 및 신체활동 정도, 전반적 식생활, 비만정도 및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 정도, 구강건강 등 기본 조사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정도, 정신건강 상태 조사한다. 또 의료시설 이용 상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사회 물리적·환경조성도 병행해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상태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오는 변화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농촌사회와 군단위 지역사회에 특성이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변화도 알 수 있도록 조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조사원 6명을

채용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조사는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군은 순창지역 실정이 정확한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구축해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또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영근 순창보건의료원장은 "2016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기반시설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이다"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 데이터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지역주민들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군에서는 표본가구 가구원 중 조사에 응한 지역주민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전화 063-650-52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조사 이외에도 지난해 군민 만성질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보건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놀이풀이 진행

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가 오는 17일 고창 주곡마을을 찾아 '2016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바탕 놀고 즐기며 풀어내는 의미를 담은 '놀이풀이'를 진행한다.

이번 '놀이풀이'는 고창 주곡마을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찾은 90여명의 대학 풍물패 고창농악 여름전수생들이 함께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신명의 한바탕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창농악보존회 이광휴 교육예능팀장은 "오랜 세월 우리네 삶을 달래주는 농악을 통해 농사일로 고단한 마을 주민들에게 모처럼 노동의 피로를 풀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은 고창군 내 마을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하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한다.

이번 '놀이풀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창농악보존회(063-562-2044)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